"태양광발전소 지방세 부과해야"

전남 560곳 가동…고용·세수 등 지역경제 기여 미미

전남도의회 과세 촉구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채택

전남 곳곳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고용 효과나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한 반면, 산림훼손 등 환경 파괴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급기야 전남도의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에서 현재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소는 925개로, 이 가운데 21개 시·군의 560개소(발전용량 187.5㎿)의 발전소가 가동중이다. 현재 공사중인 업체도 15개 시·군 74개소(발전용량 13.4㎿)에 이른다.

전국에서 가동중인 태양광 발전소 1583개소(총 발전용량 417.1㎿·2009년)에 견줘 40%(468개소·166.7㎿)에 이를 정도로 전남에 몰려있다.

일사량이 풍부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유치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방세수나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기여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등 환경 파괴 우려도 높아 '그다지 보탬이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설비 자체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세수 증대 효과가 전무하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원자력발전·화력발전·송전철탑 등 유사 발전설비와 달리 에너지 공급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로인해 취득세·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전남도의회 강우석(영암 2·민주) 의원은 "전남에서 허가받은 태양광 발전소에 과세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세수만 57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허가받은 태양광 발전소(용량 336.2㎿)를 기준으로 할 경우 취득세만 504억·재산세 63억원 등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발전소라도 상근자가 극소수에 불과하거나 무인시스템 등으로 운영돼 고용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조성,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게 해당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강진군이 지난 2008년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추가 건립을 막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태양광 뿐만 아니라 태양열·풍력·지열발전도 비슷하다. 다만, 도내 태양열·지열 발전 시설은 없는 상태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해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건의했고 최근 열린 민주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과세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도의회도 9일 제 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로 유사시설과의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대규모 투자에 비해 고용창출과 지방세 증대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과 토사유출 등 직·간접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발전회사의 부담은 없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물을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수익을 나눠 지역 사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내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지역경제 기여도는 미흡해 지방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으로 오리·닭이 살처분·매몰된 영암군 시종면의 한 매몰지에 사체가 썩으면서 생기는 가스를 밖으로 빼내기 위한 파이프들이 꽂혀 있다. 전남도는 가축질병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매몰처분 방식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소각처리 시설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I 가축 매몰지 2차 피해 막는다

전남도 115곳 전수조사 착수…소각처리 시설도 도입키로

전남도가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 115곳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전남도는 10일부터 5일간 6개 시·군의 AI 매몰지 115곳에 대한 전수(全數)조사에 나서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여부 및 악취, 유실 위험 등을 점검키로 했다.

도내 고병원성 AI 매몰지는 영암(51곳)·나주(58곳)·화순(2곳)·장흥(2곳)·여수(1곳)·보성(1곳) 등으로, 여기에 묻힌 닭·오리만 320만 마리에 이른다.

전남도는 구제역 및 AI 살처분으로 인해 '2차 환경 재앙'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4개팀을 만들어 10일부터 14일까지 영암·나주 매몰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서는 한편, 매몰두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시·군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매몰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매몰지 내 침출수 유출 문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전남도는 또 매몰표지판이 사라졌거나 지반침하 발생, 간이 집수조 미설치, 배수로 유실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 뒤 조속히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AI매몰지 전 지역의 반경 3km 이내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들 지역의 상수도 보급·이용 현황도 살펴보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소 브루셀라나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매몰처분 방식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민간시설을 활용한 소각처리 시설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도가 넘는 고온으로 동물의 유지(油脂)를 짜내는 랜더링시설을 보완할 경우 이를 폐사 가축의 소각시설로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해 민간업체와 협의 중이다.

한편, 전남도는 돼지의 경우 예방접종 후 구제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1개월 후 실시하는 2차 예방접종을 앞당겨 실시키로 하고 9일 구제역 예방 백신 10만8000두 분량을 공급받아 10일까지 도내 종돈에 대한 2차 접종을 완료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등산 연간 탐방객 279만명

이용·경관 등 총자산가치 2조 3305억원

무등산 연간 탐방객 수는 그동안 추정해왔던 800여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280여 만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1주일 평균으로는 증심사지구에 8만3711명, 원효사지구는 3만31명이 찾은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광주시가 내놓은 '무등산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자연자원 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무등산 도보탐방객은 195만7854명, 차량 탐방객은 83만2070명으로, 모두 278만9924명이었다.

용역팀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증심사지구·중머리재지구·원효사지구 등 3개 지구 16개 지점에서 일출~일몰 시까지 매 시간마다 10분 간격으로 3회씩 봄·여름·가을·겨울 등 계절마다 3~4일씩 조사했다. 계절별로는 여름이 1주일 평균 3만7623명으로 탐방객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을(3만3798명), 봄(2만7844명), 겨울(1만4477명)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무등산 이용객이 660만~8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온 무등산관리사무소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는 추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입장객 자동계수기를 설치해 정확한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탐방객 수를 기준으로 무등산의 연간 이용가치는 146억3300만원, 연간 보존가치는 967억7200만원, 연간 총 가치는 1114억500만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여기에 경관가치를 포함한 무등산의 총 자산가치는 2조3305억원으로 추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전북 설득해야"

윤봉근 시의회의장 "시·도 공항갈등 안타까워"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9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시·도가 상생 발전해 호남이 크게 번영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날 열린 제19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광주공항과 군사공항의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장과 도지사가 자주 만나서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관련해 "강운태 시장이 대전, 대구, 광주의 내륙 삼각 벨트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가 호남권 발전 측면에서 과학 벨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광주는 기초과학연구와 첨단산업기반이 집적화가 돼 있어 과학 벨트 입지로 최적지라고 판단된다"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법인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바우처 무료 영재교육

광주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한 바우처 무료 영재수업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한국문화교육진흥회 및 9개 비영리 공익법인 산하 퍼듀교육에서는 2011년 초등학생 바우처 교육을 실시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가까운 지정원으로 연락하시면 무료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4인기준 113,544원

바우처 신청 및 교육 절차
1. 바우처 등급 영수증 심사, 선정 (건강보험증 사본제출)
2. 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3. 바우처 영재교육
4. 접수·관리

※ 1년간 교육비 무료지원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진흥회 아동 바우처 프로그램 및 아동 장학교육 프로그램

• 교육대상 : 7세 ~ 초6(건강보험료 납입수가 기준, 건강보험공단확인증 제출)
• 교 육 비 : 무료 국비 또는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진흥회 100% 지원 (단, 교재 및 교구비 수익자 부담)

• 총 4개의 교육과목 중 2개 교과목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고력 영재수학 교재 및 교구
2. 창의력 실험과학교재 교재 및 교구
3. 영재 가베 교재 및 교구
4. 집중력 정·속독 교재 및 교구

지부 및 지정교육원 모집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진흥회는 21C문화교육사업의 선두주자로 건전한 교육, 문화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바우처 영재교육사업과 장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부 및 지정 교육원을 아래와같이 모집합니다.

지부모집부문
북부1지부(용봉,동림,오치,문흥:완료) 북부2지부(일곡,매곡,양산:완료) 북부3지부(두암,중흥) 남구1지부(진월,봉선:완료) 남구2지부(주월,월산) 서구1지부(치평,화정:완료) 서구2지부(금호,풍암) 광산1지부(첨단,수완지구:완료) 광산2지부(도산,월곡:완료) 광산3지부(신가,신창) 동구지부 , 화순지부

지정교육원모집부문
광주시내 전 학원-광주시내 초등학교 기준 1개 지정원
모집기간 | 2011-1.19~1.25 보낼곳 : purdu@naver.com ※메일로 신청하시면 개별 지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진흥회 선정 광주지역 교육원명단
북구 용봉동 메가캠프학원(☎ 511-0901) / 동림동 동림JS영재원(☎ 514-8330) / 일곡동 IBT잉글리쉬PaL(☎ 574-6464) / 운암동 가온학원(☎ 526-2735) / 문흥동 올림학원(☎ 261-8330) 매곡동 수학영재만들기(☎ 575-5942)/ 서구 치평동 큰사람학원(☎ 451-4020)/ 유촌동 세계로학원(☎ 383-8810) /금호동 금호고려학원(☎ 382-9700)금호동 뉴선진학원(☎682-2788) 남구 진월동 필즈아카데미(☎ 675-3240) / 광산구 월계동큰사람학원(☎ 973-6043)/ 월계동 대원학원(☎ 972-7142) / 월계동 페르마학원(☎ 973-0087) / 월곡동 윈키잉글리쉬학원(☎ 956-9050) 도산동 소망학원(☎ 946-0758)/도산동 위즈원(☎ 447-4023) / 신가동 확인영어썬수학(☎ 959-8205) / 광산구 월계동 예스월어학원(☎ 974-0709) / 쌍암동 강남대치학원(☎ 971-8883)

후원 광주일보
아름다운 나눔, 행복한 웃음을 실천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진흥회